

주요개념 : 사회변화, 부모자녀관계

## 사회변화와 부모자녀관계

이 경 혜\*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이며 자녀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인간관계이다(정수자, 1988). 부모자녀관계는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그에 따라 양육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느 문화집단이든지 공통으로 갖는 일반적인 목표가 있다. 즉, 1) 자녀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는 것, 2)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술을 가르치는 것, 3) 각 문화마다 고유하게 갖는 미덕을 습득시키는 것이다(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각 문화권과 시대적 변화 가정의 환경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정보의 범람은 가족생활 특히 부모자녀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처음 어머니가 된 젊은 여성들에게는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어린이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며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 특히 어머니는 어린이의 태도와

가치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최근 모자관계 뿐만 아니라 부자관계도 중요하다는 연구가 나오고(정수자, 1988), 실제로 아버지가 육아에 관여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에 있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몫이다. 특히 어머니의 건강은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어린이의 건강을 좌우하며, 임신중과 출산후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애착장애는 아동기 어린이의 행동장애를 발생시키는 환경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최미경, 2000; 정계숙, 박명화, 2001; 조선일보 11.3일자). 또한 부모자녀관계는 임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아기는 물론 일생동안 가장 친밀한 관계로 사랑과 존경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효의 기본을 이룬다(성규택, 1995).

이러한 입장에서 최근의 사회적 변화가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해 보는 것은 부모의 역할만족감과 자녀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이에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헌고찰과 실제 새로 어머니가 된 여성을 심층면담하여 어머니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을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통해 부모로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돕고, 어머니의 역할갈등을 줄이며, 부모-자녀 및 가족의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헌고찰과 실증적 심층면담을 통해 첫 어머니가 된 여성들이 어머니로서의 자녀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 느낌,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헌고찰을 근거로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느낌, 태도는 어떠한가?
- 2)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며 어느 정도 하는가?
- 3) 부모-자녀관계에서 효의 개념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과 Web searching을 통한 문헌고찰과 어머니의 심층면담.

기간은 10월 1일부터 30일 까지 약 1개월 간이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면담대상은 처음 부모가 된 어머니 2인이며 면담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이야기 내용을 속기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 3. 면담대상자

면담 대상자 1은 3세된 유아(여아)를 가진 현재 임신중인 30대 여성이며, 유아가 18개월까지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현재는 전업주부이다. 면담대상자 2는 4세(남), 6세(여)의 두 유아를 가진 여성으로 현재 직장생활과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30대 여성이다.

면담질문은 다음과 같다.

- 부모가 된 느낌이 어떠합니까?(남편은?)
-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무엇을 가장 참고로 합니까?)
- 하루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아버지는?)
- 자녀들과 대화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십니까?
- 부모-자녀관계에서 무엇이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III. 연구결과

### 1. 최근의 사회적 변화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부부와 미혼자녀 가족(58.6%), 부부가족(12.6%) 등 핵가족이 대부분이며 부부와 자녀 양친이 동거하는 확대가족은 8.0%에 불과하다(통계청, 2001). 이는 자녀를 출가시킨 후에도 자녀와 함께 사는 것 보다 부부만이 살기를 원하는 노인부부들이 많기 때문이다(성규택, 1995). 또한 가족의 구조, 생활양식, 여가생활 등의 이유로 2세대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수도 1985년 4.16에서 3.34명으로 줄어들고 출산률도 1.7로 한가정

의 자녀수는 1-2명에 불과하다(통계청, 2000).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누구나 자녀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신의 carrier를 유지하면서 독신으로 지내려는 여성도 있고, 결혼을 하였으나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여성도 있다. 그런가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으나 자녀를 두기를 원하는 여성도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파트너들은 앓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아이는 낳는다.... 낳자마자 여자가 서로 잘 지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아이는 동반 관계, 감정의 공유,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 등에서 독전적 지원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랑과 가족, 개인적 자유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한다(서경아, 2001).

이혼율이 증가하여 15세 이상 이혼률이 1.9이며 그중 44-50세가 가장 높아 4.4를 차지한다(통계청, 2000). 재혼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재혼률이 남성의 재혼률 보다 더 높다.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할만큼 취업을 더 중요시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부부 관계도 감정(사랑)보다는 기능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신경아, 2001). 특히 IMF이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85년 41%, 98년 47.3%)함에 따라 육아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어 직장내 탁아소나 동네의 놀이방, 어린이집, 유아원 등의 수가 증가하여 육아가 점차 가정에서 사회로 이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모에 있어 자녀양육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미경(2000)은 맞벌이 부모의 자녀에게서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괴롭히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였으며, 정계숙, 박명화(2001)는 맞벌이 부부 자녀에게서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이 많았는데 특히 양육자

가 2회 이상 교체된 아동들 중 38.7%가 반응성 애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일보 11월 3일자에서도 후천적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이 28.8%(147건 중)나 되는데 이들은 대개 맞벌이 부모를 가진 아동들로 돌보는 보모가 자주 바뀐 경우(심지어 10회)라고 하였다. 이러한 아동들은 주로 부모의 무관심 속에 보모들이 TV나 비디오를 틀어놓고 방치한 결과로 후천적인 언어장애, 자폐아를 만든다고 지적하고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 2.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

부모됨과 자녀양육은 본능적이기보다는 학습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학습은 제도적인 학습보다는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을 통해 그 문화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학습되어 내제화(internalize) 된다. 자녀양육 방식은 그 부모가 가진 신념 내지 가치관에 따라 자녀의 행동, 사고, 건강에 영향을 미쳐 다음세대의 인류문명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신념이나 가치관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재형성된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육아관에 변화를 초래하여 새로 부모가 된 아버지와 어머니 특히 어머니들은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면담내용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문화적 영향

일반적인 문화적 가치는 부모가 자녀에 갖는 태도와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Hoffman은 자녀가 부모를 충족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욕구는 경

제적 유용성과 사랑과 애정이라고 하였다. 자녀가 경제적 유용성으로 평가될 경우(예: 터키), 부모는 자녀가 복종적이고 덜 독립적이기를 바란다.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과 애정의 가치로 인정되는 나라(예: 미국)의 경우 부모는 자녀가 온화하고 외향적이며 명량한 인성특성을 지니기를 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자녀를 경제적 유용성에 두었다. 즉 자녀의 출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상승을 꾀했다. 또한 농경 사회에서 자녀가 많은 것은 노동력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는 자녀가 많을 경우 가족의 생존을 보호하기 어려워 가족 중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딸을 일찍 출가시켜 식객을 줄였다. 한편 식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집에서는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으므로 민며느리나 데릴사위를 두어 노동력을 보강하였다. 우리나라 가족계획은 자녀가 많아 경제력을 고갈시킨다는 전제하에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산아제한을 하여 인구를 감소시킨 좋은 예이다. 그러나 많은 인적자원이 경제를 부흥시키는 노동력으로 작용했으니 자녀는 그 사회의 경제적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현재에는 자녀를 사랑과 애정의 가치로 둔다. 자녀를 통해 지위상승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그것은 그 자녀의 문제이고 자녀로 인해 덕을 보겠다는 부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서 한사람의 성인으로 경제력을 가질 때까지 부모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경제력이 필요하므로 더 낳고 싶어도 교육시킬 능력이 없어 낳지 못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족계획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임률이 85%를 상회하고 출산률이 1.7인 것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면접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가 사랑과 애정의 가치라는 것과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가 영아기 때부터 들어가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 <사랑과 애정>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무엇이냐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 줘야 싶어요. 이 아이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앞으로 혼도는 이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정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적 투자>

“우리 록케는 아기나라, 영어나라, 수확나라 다 하는데 언마가 반복학습 암시켜 주면 혼자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 동생은 (아이에게) 몬테소리를 해온 책만 사도 한달에 38, 9만원 내요. (우리부모님께 빌려간)이천만원에 이자도 못 내면서... 나도 조바신이 났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겠나 싶으면서도 뭐하나 해 주고 싶어서 한글나라 해주라고 해서 한글나라 해줬어요”

한편 자녀의 태도에 대해서는 온순하고 순종적인 과거의 우리나라 자녀에 대한 기대보다는 활발하고 독립적이기를 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서구화 경향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남성은 물론 여성의 경우에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키우기를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모의 성취욕구를 자녀에게 투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아를 가진 대상자(2)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성 훈성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고싶다. 직업적으로나 세상을 대처하는 태도나 자세가 당당하고 주눅들지 말고 겁쟁이가 안티었으면 좋겠다. 자신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혼도다.”

## 2)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계층이 다른 부모들은 그들이 경험한 생활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양육 방법도 다르게 나타난다. Kohn(1963, 1969, 도현심 외, 1996 재인용)은 아버지의 직장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진 직장일 경우 아버지는 자녀의 자율성과 지도성을 존중해준다 반대로 아버지의 직장환경이 명확한 지시와 규율을 강조할 경우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에게 이와 유사한 행동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에 관한 연구는 많은데 어머니의 취업이 딸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아들에게 부정적이거나 유익하지 못했다고 한다 (Bronfenbrenner & Crouler, 1982, 도현심 외, 1996 재인용). 특히 어머니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시간제 일이나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는 딸에 대해 긍정적인 묘사를 했는데 반하여, 전일제로 고용된 어머니는 부정적인 묘사를 하였다.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어머니는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가장 긍정적인 묘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부정적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과 직장의 책임간에 역할갈등을 표현했던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한데 비해, 직업이 자존감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다고 한다. 이것은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 일을 하는 동기,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인식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면담대상자는 고학력의 직업을 가진 어머니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도의 임금을 받는 어머니 사이에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직장 그만두는 것을 쉽게 결정했어요. 지금 생각

해도 잘 그만두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면어의 세계에서는 내가 전부예요. 아침에 한시간 반 두시간 정도 같이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전에 이모에게 딸것을 때는 이전 것 못 느꼈어요. 놀이방에 가서도 언아가 데려 오는 것을 더 좋아해요” 라고 하였다. 한편 대학교수이며 대학원에 재학중인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딸 키우는 것과 아들 키우는 것이 특려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하는 것은 딸한테 내가 모범이 되고 싶어서예요. (내 딸이) 개척해나가고 혼자 선 수 있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래요.”

서경아(2001)의 연구에서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발전을 계속하면서 ‘애 입장에서 아이와 대화 할 수 있는 엄마,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엄마’라고 하여 자녀를 위해서 오히려 어머니가 당당한 직업을 가지고 발전해야 하는 것이 좋은 엄마라고 하였다.

대체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는 것은 자녀보다는 자기자신을 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특히 그 일이 전문직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서경아(2000)가 면담한 한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한테 아무 일이 없고 애깁 키워야 한다면 기운이 빠지고 멍해진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것 깁으로는 인간의 기본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머니 역할만으로는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자아정체감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전업주부들은 자신의 상황을 뒤쳐졌다, 뒤떨어졌다, 주저앉았다 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아상실감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딸에게는 ‘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자기 투사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자녀인 경우 반응성 애착장애, 자폐증과 같은 행동장애 아동이 많으며(천계숙, 박명화, 2001), 후천성 언어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조선일보 2000, 11.3), 그리고 또래집단에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하였다(최미경, 2000) 이에 대해 최미경(2000)은 이러한 증상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이유만으로 그런지 다른 변수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경제적인 이유와 여성의 자기성장 등의 이유로 취업여성의 수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녀양육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부모교육과 함께 대리부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정신운동적 능력을 고려한 보육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간호사로서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원의 개설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영아가 어릴수록 영아와 어머니 혹은 대리모, 보육자 사이에 유대와 애착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 3) 가족, 친구, 이웃, 인터넷의 영향

어머니 역할은 학습되는 것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것은 자신의 부모, 친척, 이웃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워 왔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는 부모의 신념체계를 획득, 수정시킨다. 요즘의 어머니들은 인터넷, 놀이방, 유아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들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유아기를 거치는 동안 각종 장난감, CD-ROM, 그림책, 동화책, 특히 영어로 된 각종 놀이 기구는 아이의 언어 발달을 혼란시키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다. 여기에 상업성이 가세하여 고가의 학습용 놀이기구와 책을 한 set로 판매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조

금 큰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게임과 채팅 등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여 그 득실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각기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 박성연(1996)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양육과 통제인데 최근에는 물질적 욕구를 무한정 채워주는 것이 부모역할로 인식되어 통제기능과 심리적 양육기능의 약화된다고 우려하면서 정보화가 교육적 기능 외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통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소희(1996)는 부모가 컴퓨터를 빨리 배우거나 컴퓨터를 잘하는 언니, 오빠, 아저씨 등과 자주 만나게 하여 교육, 양육,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심수민(2000)은 PC 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부모자녀관계 연구에서 청소년과 부모가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이 가족융집성과 의사소통이 높고 청소년이 긍정적이고 부모 부정적인 집단이 가족융집성과 의사소통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의 유입이 가족, 친구, 이웃 등 on line 뿐만아니라, PC통신, 인터넷과 같은 off line으로까지 확대되어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 신세대 어머니들이 흔히 이용하는 web site로는 [www.i/bab.co.kr](http://www.i/bab.co.kr)(이유식에 관한 모든 것), [doctorbaby.co.kr](http://doctorbaby.co.kr)(건강상담 및 병원소개), [baby2000.co.kr](http://baby2000.co.kr)(신생아 양육에 관한 정보), [haeorum.com](http://haeorum.com)(육아 독서지도 등) 등으로 매일 같이 새로운 web site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신세대 어머니들이 서로의 양육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받는다. 여기에는 쇼핑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있어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유행을 만들어 과소비를 부추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기자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정보를 선별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부모와 자녀의 요구와 능력을 평가하여 적절한 시기에 부모와 아이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정보 속에서도 어머니의 자녀양육의 태도를 결정하는 저변에는 자신이 양육되어온 가치관이 깊게 깔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면담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면담자 1: 아이들이 웬만한건 다해요. 영어, 컴퓨터, 그리고 할머니 어거 못하지 하고 무시하고 너무 짝 안들어요. 우리 친척들은 우리는 저렇게 키우면 안된다고 해요.

내동생은 (아이에게) 무리해서 영어나 수학 나더 다하는데 자기도 힌등고 언마도 힌등고 그 대신 밖에 나가서 놀지출 않아요 몬테소리하는데 100만원이예요. 냇들 3개 4개 하지말 나는 보통으로 키우고싶어요.

면담자 2: "내가 커온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거예요. 다른 정보는 안받아요. 내가 정보를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므로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전문서적 참고해요.

.... 우리 어머니가 저를 떨어주었어요 언마가 나를 떨어주고 내 의사를 물어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우리 아이를 절대적으로 떨어거예요. 아이 교육도 적기에 하고 아이가 원할 때 할 거예요. 아이입장에서 아이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

#### 4) 전문가의 조언

Clarke-Stewart(1978)에 의하면 자녀 돌보기에 관한 문제점에 부딪혔을 때 책을 참고로 하는

부모는 자신의 친척이나 부모와 거의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자신들이 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Ninio는 아동발달에 대한 정보는 의료전문가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들이 많은데, 건강전문가로부터의 조언은 신체발달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인지발달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체발달과 인지발달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간호학자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받는 만큼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web site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web site의 운영하고, on line과 off line을 통하여 feedback 받아 계속 up grade시켜 나가므로서 어머니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은 여러 가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점차 변해간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정 밖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므로 부모의 영향이 감소된다. 부모는 자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 3.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사람들간의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언어적 행동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들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사소통을 할 때는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서 부모는 자녀의 대인관계에 최초의 모델이고 교육과 양육의 책임자이고 자녀의 성격 형성에 주된 결정요인이 된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를 증진할 수도 있고 불안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김재은, 1974; 이영분, 1983; 정수자, 1983).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형태는 자녀를 교육, 통제하기 위해 지시명령, 훈계설교 비판형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자녀로 하여금 말을 중단하게 하고 죄의식,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폭발하게 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 \* 비난형: 자녀의 장점보다는 결점을 발견하여 언어적, 신체적 벌, 잔소리, 흑평, 명령, 재촉, 위협, 간섭 등을 자주 행한다.
- \* 복종형: 자녀에게 복종적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나친 염려와 과잉보호를 하거나 비위를 맞추면서 말한다. 자녀가 자신에게 화를 내면 쉽게 부모자신의 주장, 신념을 포기하고 자녀의 말에 순종한다.
- \* 계산형: 매우 정확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감정이 없이 냉정 침착하게 의사소통 한다. 자녀를 감정적으로 분리시켜 거리감을 느끼게 하여 자녀들은 부모에게 다가가지 못하며 냉담한 사람이 되기 쉽고 감정이 메말라 감정표현이 서툴다.
- \* 혼란형: 부모는 주의 산만하게 의사소통하고 주위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 말, 감정을 지니며 초점도 없이 번덕스러운 말을 많이 한다. 자녀양육에도 자신감이 없으며 자녀에게 공격적 행동을 유발한다. 부모의 혼란형 의사

소통은 자녀의 언어능력을 저하시키고 불안감을 주어 신경증 증세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끈다.

이와 같이 부모 자녀간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행동과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뿐만 아니라 동료간에도 따돌림을 받는다. 최미경(2000)은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체벌과 과잉보호, 무관심속에 자란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친한 친구가 거의 없고 성적이 좋지 못하며 교사로부터도 체벌을 받는다고 느끼며 교사에 대해 거리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영분(1983)은 양방향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주장한 Gordon의 이론과 기법으로 8주간의 훈련을 시킨 결과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의사소통기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관심기울이기: 관심기울이기 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해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관심기울이기 행동은 ①좋은 자세(자녀 쪽으로 약간 기울인다), ②온화한 시선의 접촉, ③부드러운 얼굴표정과 음성, ④즉각적인 언어반응을 듣고 있다.
- \* 의사확인(메시지의 내용): 의사확인은 의사소통의 정확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견해를 이해하려는 부모의 열망을 전달해 줌으로써 부모자녀간의 간격을 줄이고 갈등해결과 관계증진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기법이다.
- \* 지각확인(비언어적인 면): 부모가 자녀의 느낌

과 경험을 그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기법이다.

\* 느낌 말하기: 부모자녀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 부모가 느낌을 처리하는 데는 ① 느낌을 말로 하는 것, ② 얼굴색을 변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표현, ③ 기분을 파괴하거나 자녀를 과격하게 때리는 행동 등이 있다. 이중 말로 표현하는 것이 건전한 부모자녀관계 발달에 가장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

본 연구의 면담대상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편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자녀와의 대화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면담자 1: 우리애는 애교가 너무 많아요. 말하는 수준이 승기씨(남편)보다 높아인 5살짜리가 놀이방에서 시늉 짓는데 우리보다 잘 지어요. 어떤때는 어선애처럼 어선양을 하고 괜히 막을 이상하게 하기도 해요.

우리는 주로 역할놀이를 해요. 지연이가 언마가 되고 내가 지연이가 되어 대화하기도 하고. 언마가 선생님 하려고도 하고 동학에 나오는 역할을 맡기도 해요. 놀이방에서 많이 하나떠오나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역할놀이를 굉장히 잘해요. TV, Video 그런 것 봐서 그런가 봐요. 책임감을 좋아해요 동학책 읽어주고 옛날얘기랑 팸플로 해줘요.

..... 말 안듣고 속상할 때는 때리기도 하죠.... 왜냐 때릴 일이 많죠.

면담자 2: 책을 읽어주어요, 창작동화, 전래동화, 수학동화, 고전 신데렐라 그런거 읽어요. 잘 때는 꼭 읽어주죠. .... 말하는 것이 제 수준 이에요 제가 짹짹 놀래요. '내가 아파서 언마마음이 너무 아팠지?' '언마가 너무 너무 보고싶었어' 하다가도 굶방 포기하고 '언마 다녀오세요' 한다. 아이들애 애기를 하는 것이 교사의 정석처럼 잘 하려고 하는데 내가 컨디션 나쁠 때는 아맛도 치고 그래요 때리지는 않는데 특히 내가 잠이 오는데 책 읽어달라고 하면 소리지르고 자자라고 해요. .... 직장생활하고 늘 처책감 있어서 그전에는 사달라고 하면 안텐다고 했는데 갖고 싶다고 하면 억은 사주어요. 교육적이지 않다 싶으면서도...

면담자들의 반응은 요즘아이들은 너무 똑똑하여 수준이 어른 같고 그래서 어른 같은 표현을 해 부모가 당혹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것은 TV, 비디오 등 메스미디어와 놀이방 등 가정외적 영향과 조기교육의 열풍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대체로 전업주부들은 자신이 자녀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경아(2000)는 그의 연구에서 면담자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추는 것, 아이 의사 존중하고 민주적 가정 만드는 것이 좋은 언마라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판단이 아직 흐리기 때문에 어떤 길로 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언마가 먹고 당기고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봐요.”

그에 비해 본 연구의 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마가 가진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해요, 교육도 적기에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데로 합니다 아이입장에

서 생각하면 동반자가 됩니다.”

조기교육에 대한 결과가 어렸을 때의 반짝 효과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되어 성인기의 생산력과 인성으로까지 연결 될 것인지, 그에 따른 역기능은 없는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기교육을 언제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는 교육학, 아동학, 아동간호학 부모자녀 건강학 등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학제적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된다.

#### 4.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효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는 영유아기 아동들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인사이의 부모자녀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들과의 별거, 거주지의 원격화, 접촉과 대화의 감소 등으로 전통적 방식으로 부모부양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노부모 부양이 성인자녀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 이로 인해 가족 내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힌다. 부모도 자녀에게 패를 끼치지 않고 독립해서 떨어져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성규택, 1995).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give and take의 원리(Gouldner, 1960, 성규택, 1995 재인용)가 아니라 상호의존하는 관계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모에게 극진한 효도를 한 효행자들의 효도 의지를 보면 ① 부모에 대한 존경, ② 부모에 대한 책임, ③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화합, ④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 ⑤ 부모를 위한 희생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효행이유는 ① 사랑/애정, ② 보은/보답, ③ 가족화합, ④ 부모에 대한 존경, ⑤ 의무감/책임감 ⑥ 부모에 대한 희생의 순으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책임이 효행을 하는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무감 책임감은 부모자녀간에 교호적인 관계를 튼튼히 유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는 과거에 자녀를 위해 큰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교호적이 지원관계가 이루어진다. 자녀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부모를 대할 경우 비록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적더라도 교호적 지원관계가 유지된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부모를 보호 부양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효도한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감과 의무감만으로 하는 효도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자녀가 노부모 부양이 어려운 이유는 자녀에 대한 사랑 만큼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내리사랑이라고 사랑도 우주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인 것 같다.

부모를 보호 부양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가족 내외의 영향으로 부모를 자녀가 가정에서 모시는데 문제가 많다. 그러나 국가가 노인을 부양할 만한 시설이나 재원이 없다. 따라서 국가는 효를 내세워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할 것을 권하고 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이상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가족이 하는 것 처럼 애정, 책임, 희생심을 가지고 부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인의 심리적인 문제와 문화적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설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친척이나 이웃들은 이러한 자녀를 불효한 자녀라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대는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회적 지원망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망은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망을 둘 수 있는데 비공식적 지원망으로는 가족 외에 친구와 이웃이 중요한 지지망이 된다. 다수

의 노인들이 가족이나 친척보다는 친구와 이웃을 더 자주 찾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더 많은 노인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 친구, 이웃을 중심으로 한 지지망을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중년여성들과 노인들이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갖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본 연구의 면담자들도 자녀들에 대한 부양은 거의 기대하지 않으며 자녀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잘사는 것이 효도라고 말하고 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하는 것만큼은 못 할꺼예요 부모자식관계에서 부모는 끝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봐요 바라는 것이 없어도 부모는 주고 싶어해요. 우리시대에는 다 양노원 가야죠. 효라는 것이 옛날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에서(지녀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효가 아닌가 생각해요.”

### 5. 자녀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주로 교육과 통제였으나 최근에는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는 등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아버지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휴직하고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하는 전업주부(主夫)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주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아이가 놀고 웃고 편안한 때만 육아를 거들 뿐 육아가 전적으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취업주부인 경우 대부분 할머니(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육아를 대신해 육아에 따른 과로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할머니의 도움이 없는 경우 취업주부가 아이를 맡기고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가정부나 파출부 등에게 맡길 경우 비용이 엄청난데다 아이의 건강과 교육이 사각지대에 빠진다. 많은 연구에서 이에 대한 폐해가 밝혀지고 있다. 탁아소나 놀이방은 적어도 3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나마 24시간 돌봐주는데는 없으므로 밤근무를 하는 여성이나 1일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와 같은 직업을 가진 경우 맡길 곳이 없다. 그나마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영유아를 위한 탁아시설과 보육자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육아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강욱(2000)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육아에 아버지가 꼭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 노부모를 위하여: 노부모가 지속적으로 손자손녀를 키우는 것은 중노동이다 노부모가 품위 있게 손자손녀를 사랑하는 즐거움을 누리려면 육체적으로 힘겨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
- \* 아내를 위하여: 가사일 중 가장 힘든 일이 육아이다. 남편이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아내의 일의 과중함을 덜어주고 남편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과 행복을 더하는 일이다. 만일 어떤 분야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뛰어나다면 아내의 사회활동이 더 존중되도록 가정의 일이 분배되어야 한다.
- \* 아이를 위하여: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성숙한 놀이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결핍을 경험한 아이는 문화적인 성역할 통념을 완고하게 지키려는 방어적 자세를 보이거나 자신의 성에 적절하다고 기대되는 행동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남성성 발달뿐만 아니라 딸의 여성성 발달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강옥(2000)은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매일 아이와 지내거나 놀아주는 것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운동이며 자신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깨달음의 의식이라고 상징화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문헌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고찰하고 논의해 보았다. 간호학적인 자료는 토의를 위한 몫으로 남겨두었다.

현시대의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임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별로 살펴보고자 했으나 시간적인 제약과 자료의 부족으로 영유아기에 그쳤다. 각 기별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할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특히 인터넷과 조기교육의 영향이 자라나는 세대의 성장발달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간호학, 아동학, 심리학, 사회학 등 전문가들에 의한 학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총체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자들은 건강한 부모자녀관계가 유지, 증진되도록 교육 및 연구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1996). 부모자녀관계, 서울: 학지사

박성연(1996). 정보화사회의 부모역할, 정보산업사회와 아동,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보고서

성규택(1995). 새시대의 효, 서울: 연세대학 출

판부

신경아(2001). 가족의 변화와 모성의 재구성, 모성, 부성, 그리고 변화하는 부모역할,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보고서

심수민(2000).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부모자녀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이강옥(2001). 달라지는 아버지, 달라져야하는 아버지, 모성, 부성, 그리고 변화하는 부모역할, 정보산업사회와 아동,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보고서

이소희(1996). 정보화사회의 부모역할에 관한 토론, 정보산업사회와 아동,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보고서

이영분(1983). 어머니교육을 통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적 관계개선에 관한 실험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정계숙, 박명화(2001). 사회정서발달문제로 상담실에 의뢰된 아동에 관한 기초연구-진단과 중재를 위한 시사, 정서 학습장애 연구, 17(1),143-171

정수자(1988). 부모자녀간의 대인관계 유사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최미경(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통계연감(2000). 통계청

조선일보, 2000. 11. 3

<http://www.nso.go.kr>    <http://www.baby2000.co.kr>

<http://www.yahoo.co.kr>    <http://www.bebehouse.com>

<http://www.i/bab.co.kr>    <http://www.haeorum.com>

<http://www.doctorbaby.co.kr>

ABSTRACT

Key Concept : Social change, Parent children relationship

## Social change and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Children

Lee, Kyung Hy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children is basic relation and initial relationship.

It is essential research to explor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n's health promotion in rapidly changing social situation influence parenting attitud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o explore first mother's parenting belief, communication, filial piety by indepth interview and literature review.

Method of research is literature review (books and articles) and Web site researching (home page) and contacted two mothers to do individual interview.

Data was collected and analysed according to the objectives.

The result of this study as follows.

- 1) It was problem that is child rearing and child education due to working parents.
- 2) It was discussed parent's belief regarding child rearing. The belief was influence by culture, social economic status, family

friend and internet, advise of professional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as influenced by family, friend and internet Web site.

- 3) Parent-child communication was reviewed and discussed about influence of masmedia and early education system. Children's level of language development was rapidly improved by role play and read the book with mother.
- 4) It was discussed concept of filial piety. Parent was not expected filial piety from their children. Parent thought that they already received filial piety from their children, because children gave them pleasure and happiness during growing process. Parents want their children become mature person and adapt to informative changing society.

Finally, it is needed further interdisciplinary study for parent-child health promotion and growth and development in rapidly changing society.

\*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cience